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연어(COLLOCATION) 관계 대조 분석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 양상을 중심으로-

박은영 (Pak Eunyoung)

강호형 (Kang Hohyeong)

Korean Teacher of "Foreign Languages" department in
Tashkent Kimyo International University in Namangan branch

초록(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에 나타나는 명사+동사 연어(collocation) 관계를 대조 분석하여 두 언어의 어휘 결합 방식과 어휘 선택상의 차이를 밝히고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겪는 연어 습득의 어려움과 오류 양상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명사+동사 연어는 사건, 행위, 상태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어휘 결합이며 개별 어휘의 의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명사+동사 연어를 중심으로 동사의 선택 양상과 결합의 고정성 및 의미 투명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사전 예문과 실제 사용 예를 활용하였으며, 의미 대응 관계, 결합의 고정성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한국어는 특정 명사와 결합하는 동사가 비교적 고정되어 관용성이 높은 반면, 우즈베크어는 보다 일반적이고 의미가 투명한 동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오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명사+동사 연어의 대조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어휘 교육, 특히 우즈베크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 능력은 단어의 개별 의미 습득을 넘어, 단어 간 결합 방식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특히 명사+동사 연어는 행위와 사건을 표현하는 기본 구조로서 사용 빈도가 높지만, 문법 규칙만으로는 적절한 동사 선택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우즈베크어권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에서 사용되는 일반 동사를 한국어 표현에 그대로 대응시켜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나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자주 관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명사+동사 연어를 대조적으로 분석하여 두 언어의 어휘 결합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연어(collocation) 유형 가운데 명사+동사 결합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한다. 이는 명사+동사 연어가 사건, 행위, 상태를 표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어 학습자에게서 오류가 빈번하게 관찰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문법적 오류가 없더라도, 관습적인 동사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현의 자연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분석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대상 연어는 일상적 담화와 학문적 담화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명사+동사 연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잠이 들다’, ‘이야기를 나누다’, ‘전화를 걸다’, ‘계획을 세우다’, ‘돈을 벌다’, ‘사진을 찍다’ 등 한국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연어와 이에 대응하는 우즈베크어 표현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연어 선정 과정에서는 한국어 사전과 우즈베크어 사전의 예문, 그리고 실제 언어 사용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을 참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먼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명사+동사 연어를 각각 제시하고, 두 언어에서 동일한 의미가 어떠한 어휘 결합을 통해 실현되는지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사의

의미 범위, 결합의 고정성, 의미 투명성 여부를 주요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두 언어의 어휘 결합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범하기 쉬운 언어 오류의 원인을 언어 간 차이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 말뭉치나 실험 자료를 활용한 양적 분석이 아닌, 언어 간 어휘 결합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개별 오류의 빈도보다는 오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이론적 배경

2.1 연어(collocation)의 개념

연어(collocation)란 둘 이상의 어휘의 우연적인 결합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 내에서 관습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어휘 결합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합한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와 결합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연어 개념은 Firth(1957)의 “You shall know a word by the company it keeps”라는 주장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Halliday, Sinclair 등 기능주의 및 말뭉치 언어학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확장되었다. 이 관점에서 어휘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단위가 아니라, 다른 어휘와의 결합 속에서 의미와 사용 가치가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어는 일반적으로 자유 결합(free combination)과 관용구(idiom) 사이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 자유 결합은 의미적 제약이 거의 없고 조합 가능성이 넓은 반면, 관용구는 의미가 불투명하고 형태적 고정성이 강하다. 연어는 이 두 범주 사이에서 의미적 투명성은 비교적 유지되지만, 결합의 관습성이 강한 어휘 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는 비교적 자유 결합에 가깝지만,

‘사진을 찍다’나 ‘마음을 먹다’는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동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언어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언어는 문법 규칙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외국어 학습자에게 특히 습득 부담이 큰 어휘 영역으로 간주된다.

2.2 명사+동사 언어의 특징

언어 유형 중 명사+동사 언어는 사건, 행위, 상태를 표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로, 실제 언어 사용에서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인다. 한국어의 ‘잠이 들다’, ‘전화를 걸다’, ‘계획을 세우다’, ‘정미 들다’와 같은 표현은 모두 명사+동사 언어의 대표적인 예이다.

명사+동사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동사 선택의 제약성이다. 동일한 명사가 여러 동사와 문법적으로 결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에서는 특정 동사만이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진을 하다’는 문법적으로 가능해 보일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사진을 찍다’가 관습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제약은 의미 규칙보다는 언어 사용의 관습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명사+동사 언어는 의미적 비대칭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명사는 비교적 구체적인 의미를 유지하는 반면, 동사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언어 내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마음을 먹다’에서의 ‘먹다’, ‘말을 걸다’에서의 ‘걸다’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해당 언어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명사+동사 언어는 외국어 학습자에게 단순한 어휘 암기 대상이 아니라, 언어별 어휘 결합 체계를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된다.

2.3 한국어 언어의 특성과 동사 선택

한국어 언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동사 중심의 언어 체계이다.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나 행위를 표현하더라도, 명사보다 동사의 선택이

의미와 자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명사+동사 연어에서 동사는 결합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특정 명사와의 결합이 관습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잠’은 ‘자다’와 결합할 수 있지만, 상태 변화나 순간적 사건을 강조할 때는 ‘잠이 들다’가 선호된다. ‘계획’ 역시 ‘하다’와 결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강조할 때는 ‘계획을 세우다’가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의미 차원이 아니라, 담화 맥락과 관습적 사용에 기반한 선택이다. 또한 한국어 연어는 의미 투명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학습자가 개별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더라도 전체 표현의 자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는 의미 범위가 넓은 일반 동사를 활용한 우회적 표현을 선택하거나, 모국어 표현을 직역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2.4 우즈베크어 연어의 특성과 의미 투명성

우즈베크어의 명사+동사 연어는 한국어에 비해 의미 투명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우즈베크어에서는 ‘qilmoq(하다)’, ‘bermoq(주다)’, ‘olmoq(받다)’, ‘topmoq(찾다/얻다)’와 같이 의미 범위가 넓고 기능적인 동사가 다양한 명사와 자유롭게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다’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surat olmoq’, ‘돈을 벌다’에 대해 ‘pul topmoq’, ‘계획을 세우다’에 대해 ‘reja tuzmoq’와 같이, 동사의 의미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결합은 학습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생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우즈베크어권 학습자가 한국어를 사용할 때 모국어의 결합 방식을 그대로 전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의미적으로는 이해 가능하지만, 한국어 관습에서는 부자연스러운 연어 표현이 생성되기 쉽다.

2.5. 대조 분석과 연어 연구의 교육적 의의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은 두 언어의 구조적·의미적 차이를 비교하여 외국어 학습자의 오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연구 방법이다. 특히 언어와 같이 언어별 관습성이 강한 영역에서는 대조 분석이 중요한 설명력을 지닌다. 명사+동사 연어에 대한 대조 분석은 학습자의 오류를 단순한 실수나 미숙함으로 보기보다, 언어 간 어휘 결합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필연적 현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는 학습자의 오류를 교정 중심이 아닌 인식 중심, 전략 중심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명사+동사 연어를 대조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는, 어휘 결합 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확장함과 동시에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어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3.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명사+동사 연어 대조 분석

3.1 한국어 명사+동사 연어의 특징

한국어의 명사+동사 연어는 특정 명사와 결합하는 동사가 비교적 강한 결합 제약을 가지며 관습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동일한 명사가 문법적으로 여러 동사와 결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극히 제한된 동사만이 자연스럽게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진’이라는 명사는 ‘하다’, ‘보다’, ‘만들다’ 등 다양한 동사와 결합이 가능해 보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사진을 찍다’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연어로 사용된다. ‘사진을 하다’와 같은 표현은 문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더라도, 일상 담화에서는 매우 비자연스럽게 인식된다. 이와 같이 한국어 명사+동사 연어에서는 동사 선택이 의미 규칙이 아니라 사용 관습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어 명사+동사 연어는 의미 투명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마음을 먹다’, ‘정미 들다’, ‘말을 걸다’와 같은 표현에서 동사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연어 내에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의미는 개별 어휘의 단순 합으로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연어는 학습자가 사전적 의미에 근거해 동사를 선택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유형이다.

한국어 명사+동사 연어의 또 다른 특징은 상태 변화나 사건의 성립을 강조하는 동사의 사용이다. ‘잠을 자다’가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데 비해, ‘잠이 들다’는 상태의 변화를 강조한다. ‘계획을 하다’가 포괄적인 표현이라면, ‘계획을 세우다’는 준비 과정과 구조화를 암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문법적 제약보다는 담화 관습과 의미 미세 차이에 기반한 것으로, 외국어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한국어의 명사+동사 연어는 결합의 고정성, 의미 투명성의 저하, 동사 선택의 관습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이는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일반 동사를 과잉 사용하거나 직역 표현을 생성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3.2 우즈베크어 명사+동사 연어의 특징

우즈베크어의 명사+동사 연어는 한국어에 비해 의미 투명성이 높고 결합의 생산성이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 우즈베크어에서는 하나의 명사가 비교적 넓은 의미 범위를 지닌 일반 동사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합은 언어 사용에서 자연스럽게 허용된다. 특히 ‘qilmoq(하다)’, ‘olmoq(받다/얻다)’, ‘bermoq(주다)’, ‘topmoq(찾다/얻다)’와 같은 동사는 다양한 명사와 결합하여 사건이나 행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surat olmoq(사진을 찍다)’, ‘pul topmoq(돈을 벌다)’, ‘qaror qabul qilmoq(결정을 내리다)’, ‘reja tuzmoq(계획을 세우다)’와 같은 표현은 동사의 의미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며, 전체 의미 역시 쉽게 예측 가능하다. 이러한 우즈베크어 연어의 특징은 학습자의 어휘 사용에 있어 높은 이해 가능성과 생산성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새로운 명사를 접하더라도, 기존에 알고 있는 일반 동사를 활용하여 비교적 쉽게 표현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모국어 사용에서는 효율적인 전략이지만,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는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우즈베크어 명사+동사 연어는 의미 중심적 결합이 강해, 동사의 선택이 관습보다는 의미 기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행위를 표현할 때에도 동사의 핵심 의미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며, 한국어와 같이 동사가 연어 내부에서 의미를 상실하거나 특수화되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우즈베크어권 학습자는 한국어 명사+동사 연어를 사용할 때, 모국어의 투명한 결합 방식을 기준으로 동사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사진을 하다’, ‘돈을 찾다’, ‘말을 말하다’와 같은 비자연스러운 표현을 생성하기 쉽다. 이는 단순한 어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두 언어 간 어휘 결합 체계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3 명사+동사 연어 대응 예시

의미	한국어 연어	우즈베크어 연어
잠	잠이 들다	uxlab qolmoq
이야기	이야기를 나누다	suhbatlashmoq / gap almashmoq
전화	전화를 걸다	qo'ng'iroq qilmoq
돈	돈을 벌다	pul ishlab topmoq
사진	사진을 찍다	surat olmoq
산	산을 오르다	toqqa chiqmoq
계획	계획을 세우다	reja tuzmoq
정	정이 들다	mehr qo'yimoq
결정	마음을 먹다	qaror qabul qilmoq
말	말을 걸다	gapirmoq (gapni boshlaganda)

3.4 대조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명사+동사 연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언어의 어휘 결합 방식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차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대조 분석 결과,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동일한 의미 범주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동사 선택 방식과 연어의 관습성 정도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동사 선택의 고정성 측면에서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한국어의 명사+동사 연어는 특정 명사와 결합하는 동사가 관습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동사 대체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다’, ‘전화를 걸다’, ‘계획을 세우다’와 같은 표현은 다른 동사로의 교체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우즈베크어에서는 의미 기능이 비교적 일반적인 동사가 다양한 명사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어, 결합의 유연성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 의미 투명성 측면에서도 두 언어는 상반된 특징을 보인다. 한국어 연어의 경우, 동사가 연어 내부에서 본래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특수화하는 경향이 강해, 전체 표현의 의미를 개별 어휘 의미의 합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마음을 먹다’, ‘정이 들다’, ‘말을 걸다’와 같은 표현은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쉽지 않다. 이에 비해 우즈베크어 연어는 동사의 핵심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게 유지되며, 연어 전체의 의미 역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셋째, 연어 형성 원리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국어의 명사+동사 연어는 사용 관습과 담화 관례에 기반한 표현이 많은 반면, 우즈베크어 연어는 의미 기능 중심의 결합이 두드러진다. 이는 한국어 연어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초점을 둔 표현 체계라면, 우즈베크어 연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중심으로 조직된 표현 체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는 모국어에서 익숙한 의미 투명성과 결합의 자유도를 기준으로 한국어 표현을 구성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그 결과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이나 직역에 의한 비자연스러운 연어 표현을 생성하게 된다. 이는 학습자의 어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 두 언어 간 어휘 결합 체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명사+동사 연어는 표면적으로는 대응 관계를 형성하지만, 실제로는 동사 선택의 제약성, 의미 투명성, 관습성의 정도에서 구조적인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대조 분석 결과는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오류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나아가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연어를 개별 단어가 아닌 언어별 결합 단위로 지도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4.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동사 연어 사용 양상 조사

4.1 설문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동사 연어 사용 양상을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한국어를 학습 중인 우즈베크어권 학습자 약 30~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습자의 숙달도는 초급에서 중급 수준에 해당한다.

설문 문항은 우즈베크어 명사+동사 결합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어 명사+동사 연어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실제로 어떤 동사를 선택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인지 판단이 아닌 생산 능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문 문항은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 직역에 의한 오류, 연어 회피 현상 등 주요 연어 오류 유형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실제 언어 사용에서 빈도가 높고 교육적 중요성이 큰 연어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문항의 적절성과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전공자의 검토를 거쳐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동일한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는 사전 참고 없이 자신의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채점은 각 문항에 대해 목표 연어를 기준으로 정답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미 전달이 가능하더라도 관습적 연어에서 벗어난 표현은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qo’ng’iroq qilmoq’ 과 같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정답인 ‘전화를 걸다’뿐만 아니라 ‘전화를 하다’역시 문법적 의미적으로 맞는 선택지가 있을 경우 “Raqam terish va aloqa o'rnatish harakatiga qaratilgan ibora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눌러 연결을 시도하는 것에 초점을 둔 표현”이라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문법적 정확성뿐만 아니라 언어의 자연성과 관습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문항별 정답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한 후, 오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1) 응답 수집, (2) 정답 및 오답 판정, (3) 오류 유형 분류, (4) 유형별 빈도 및 특징 분석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이론적·대조적 분석에서 제시된 언어 오류 유형이 실제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대규모 통계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질적 분석을 보완하는 실증 자료로서 학습자의 언어 사용 경향을 확인하는 데 의의를 둔다.

4.2 설문 조사 결과 분석(N=26)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명사+동사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였다. 설문은 총 50문항(문항당 2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는 토픽 1-2급 16명, 3-4급 7명, 5-6급 1명, 등급 없음 2명으로 구성되어 초·중급 학습자가 중심을 이룬다.

먼저 전체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점수는 49.4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점수는 90점, 최저 점수는 20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준편차는 20.5로 나타나 학습자 간 성취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학습자 언어 능력 평가 결과 기초 통계

항목	결과(N=26)
전체 응답자 평균 점수	49.4점
최고 점수	90점
최저 점수	20점

점수 표준편차	20.5
---------	------

* 분석 결과, 학습자 간 성취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가 70점으로 매우 큰 편이며, 표준편차 약 20.5점 역시 학습자들의 점수 분포가 넓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우즈베크어권 학습자들이 명사+동사 연어 사용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평균 점수가 50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연어가 단순한 어휘 지식만으로는 습득되기 어려우며, 관습적 결합에 대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높은 표준편차는 언어 능력이 학습자 간에 균일하게 발달하지 않고, 개별 학습 경험이나 노출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숙달도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평균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토픽 1-2급 학습자의 평균 점수는 41.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3-4급 학습자는 74.4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2] 숙달도별 인원 구성 및 평균 점수

숙달도	인원(명)	평균 점수	비고
토픽 5-6급	1	72점	
토픽 3-4급	7	74.4점	최고점(90점) 포함
토픽 1-2급	16	41.3점	
토픽 없음	2	21점	

이는 숙달도 향상에 따라 언어 사용 능력 역시 일정 부분 발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토픽 5-6급 학습자의 평균 점수는 72점으로 3-4급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숙달 단계에서도 언어 능력이 자동적으로 향상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언어 습득이 단순한 언어 노출이나 문법 지식 축적만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토픽 없음’ 집단의 평균 점수는 21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 어휘 단계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결합 자체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문항별 응답 양상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연어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특히 상태 변화나 관습적 의미를 포함하는 연어(예: ‘잠이 들다’, ‘정미 들다’)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연어들이 의미 투명성이 낮고 동사 선택의 관습성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주요 문항별 오류 응답 분석

분류	대상 문항(의미)	한국어 정답 (빈도)	오류 응답 (빈도)
일반 동사 과잉	전화를 _____ (Qo'ng'iroq qilmoq)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눌러 연결을 시도하는 것에 초점을 둔 표현	걸다(8)	하다(13), 보내다(4), 때리다(1)
	이야기를 _____ (Suhbatlashmoq/Gap almashmoq)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함	나누다(7)	하다(9), 말하다(3), 바꾸다(7)
직역 오류	은혜를 _____ (Minnatdorchilikni qaytarmoq)	갏다(7)	돌려주다(16), 하다(2), 주다(1)
	정미 _____ (Mehr qo'yomoq)	들다(7)	놓다(10), 넣다(5), 생기다(4)

언어 회피	귀를 _____ (Quloq solmoq)	기울이다 (5)	듣다(13), 놓다(6), 주다(2)
	잡이 _____ (Uxlab qolmoq)	들다(6)	자다(17), 남기다(2), 오다(1)

또한 다수의 문항에서 일반 동사를 활용한 응답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습자가 의미 전달의 용이성을 우선시하여 결합 제약이 적은 동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동시에 우즈베크어 표현을 그대로 반영한 직역형 응답과, 관습적 언어 대신 보다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회피 전략 역시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즈베크어권 학습자의 언어 사용이 단순한 어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두 언어 간 어휘 결합 방식의 차이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오류 양상은 다음 절에서 논의할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 직역에 의한 오류, 언어 회피 현상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

4.3 설문 결과에 나타난 언어 사용 특징

본 연구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동사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의 응답은 크게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 직역에 의한 오류, 언어 회피 현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①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

설문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이다. 예를 들어 ‘전화를 걸다’ 문항에서 정답인 ‘걸다’(8명)에 비해 ‘하다’(13명), ‘보내다’(4명) 등의 응답이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문항에서도 ‘나누다’(7명)보다 ‘하다’(9명), ‘말하다’(3명), ‘바꾸다’(7명)와 같은 일반 동사 사용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의미 범위가 넓고 결합 제약이 적은 동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우즈베크어에서 ‘qilmoq(하다)’와 같은 일반 동사가 다양한 명사와 결합하는 특성이 한국어 사용에 전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문법적 정확성보다는 의미 전달의 용이성을 우선시하여 일반 동사를 선택하며, 이는 표현의 자연성과 관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직역에 의한 오류

두

번 ‘은혜를 갚다’ 문항에서 정답 ‘갚다’(7명)에 비해 ‘돌려주다’(16명)가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정이 들다’ 문항에서도 ‘들다’(7명)보다 ‘놓다’(10명), ‘넣다’(5명)와 같은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는 우즈베크어 표현인 ‘minnatdorchilikni qaytarmoq(은혜를 되돌려주다)’, ‘mehr

9
타
아
특

③ 연어 회피 현상

세 번째 특징은 연어 회피 현상이다. ‘잠이 들다’ 문항에서 ‘들다’(6명)보다 ‘하다’(17명)가 훨씬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귀를 기울이다’ 문항에서도 ‘기울이다’(5명) 대신 ‘들다’(13명)가 선택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5.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오류 유형에 대한 이론적 해석

본 장에서는 4장에서 확인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동사 연어 오류를 단순한 사용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언어 간 차이와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전략적 특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 직역에 의한 오류, 연어 회피 현상을 외국어 습득 이론의 틀 속에서 설명함으로써, 해당 오류가 발생하는 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5.1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과 의미 중심 전략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은 단순한 어휘 부족 현상이라기보다, 학습자가 의미 전달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선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즈베크어에서는 ‘qilmoq(하다)’, ‘bermoq(주다)’, ‘olmoq(받다)’와 같은 의미 범위가 넓은 동사가 다양한 명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며, 이러한 결합은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고 생산성이 높다. 이러한 모국어의 어휘 결합 방식은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로 작용하여, 학습자가 결합 제약이 강한 한국어 연어 대신 의미적으로 포괄적인 일반 동사를 선택하도록 만든다. 즉, 학습자는 ‘전화를 걸다’ 대신 ‘전화를 하다’, ‘이야기를 나누다’ 대신 ‘이야기를 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지만, 관습적 연어에서 벗어난 표현을 생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 중심 처리 전략(meaning-oriented processing strategy)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는 제한된 어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결합 제약이 적은 동사를 선호하며, 이는 초기 및 중간 단계 학습자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따라서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은 단순한 오류라기보다,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5.2 직역에 의한 오류와 중간언어의 형성

직역에 의한 오류는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의 어휘 결합 방식 차이가 학습자의 언어 체계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즈베크어에서는 동사의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게 유지되며, 명사와의 결합 역시 의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모국어에서의 결합 구조를 그대로 한국어에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형성되는 중간언어(interlanguage)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간언어는 목표어와

모국어의 특성이 혼합된 과도기적 언어 체계로, 학습자는 이 체계를 바탕으로 언어를 생산한다. 직역 오류는 바로 이 중간언어 체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적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적으로 타당한 표현을 구성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특히 직역 오류의 경우, 학습자가 자신의 표현을 의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반복 사용 시 해당 표현이 중간언어 체계에 고착될 위험이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와 달리 장기적인 화석화(fossilization)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5.3 언어 회피 현상과 학습자 불안

언어 회피 현상은 학습자가 특정 표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피하는 전략적 행동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설문 결과에서도 ‘잠이 들다’, ‘귀를 기울이다’와 같은 관습적 언어 대신 ‘잠을 자다’, ‘듣다’와 같은 일반 표현이 선택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회피 전략은 학습자가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의사소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명사+동사 언어는 결합 제약이 강하고 의미 투명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학습자가 동사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 결과 학습자는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표현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어 습득에서 흔히 논의되는 회피 전략(avoidance strategy)의 한 유형으로, 학습자의 언어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언어 회피가 지속될 경우, 학습자는 의미 전달에는 성공하더라도 어휘적 다양성과 표현의 정교성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하게 된다.

5.4 종합 논의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동사 언어 오류는 단순한 어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1) 모국어 전이에 따른 결합 방식 차이, (2) 중간언어 형성 과정, (3) 의미 중심 처리 전략과 회피 전략과 같은 학습자의 인지적·전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은 의미 중심 전략의 결과이며, 직역 오류는 중간언어 체계의 반영이고, 언어 회피 현상은 학습자 불안과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언어 오류를 단순한 ‘틀림’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로 재인식하게 하며, 향후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6. 명사+동사 언어의 교육적 적용 방안

6.1 언어 단위 중심 어휘 제시

앞서 논의한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 직역에 의한 오류, 언어 회피 현상은 공통적으로 어휘를 개별 단어 단위로 제시하고 학습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동사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언어 단위 중심 어휘 제시(collocation-based lexical presentation)**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언어 단위 중심 어휘 제시는 명사와 동사를 각각 분리된 어휘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에서 관습적으로 결합되는 형태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잠’, ‘이야기’, ‘전화’, ‘계획’과 같은 명사를 단독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잠이 들다’, ‘이야기를 나누다’, ‘전화를 걸다’, ‘계획을 세우다’와 같이 명사와 동사가 결합된 언어를 기본 어휘 항목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특정 의미를 표현할 때 필요한 동사 선택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제시 방식은 특히 우즈베크어권 학습자에게 효과적이다. 우즈베크어에서는 qilmoq(하다), bermoq(주다), olmoq(받다)와 같은 의미 범위가

넓은 일반 동사가 다양한 명사와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한국어에서도 동일한 결합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며, 그 결과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이나 직역에 의한 비자연스러운 표현을 생성하게 된다. 언어 단위로 어휘를 제시할 경우, 한국어에서는 명사에 따라 결합 가능한 동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어 이러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언어 단위 중심 어휘 제시는 언어 회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자가 언어를 개별 단어의 조합이 아닌 하나의 고정된 표현으로 인식할 경우, 동사 선택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실제 담화 상황에서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사진을 찍다’, ‘돈을 벌다’, ‘산을 오르다’, ‘말을 걸다’와 같은 관습적 언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장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어휘 제시가 가능하다. 첫째, 신출 어휘 제시 단계에서 명사를 단독으로 제시하지 않고 핵심 동사와 함께 제시한다. 둘째, 동일 명사와 결합 가능한 동사를 나열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빈도가 높은 대표 언어를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한국어 언어와 우즈베크어 대응 언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언어 간 결합 방식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인식시키는 대조 활동을 병행한다.

이와 같은 언어 단위 중심 어휘 제시는 학습자의 어휘 지식을 단순히 확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표현의 자연성, 유창성, 그리고 고급성을 함께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교수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6.2 대조 중심 교수 전략

앞서 제시한 언어 단위 중심 어휘 제시와 더불어,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동사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조 중심 교수 전략(contrastive teaching approach)**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조 중심 교수 전략이란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두 언어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교수 방식으로, 특히 어휘 결합과 같이 언어별 관습성이 강한 영역에서 유용하다.

명사+동사 연어의 경우, 동일한 의미 범주에 속하더라도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서로 다른 동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잠이 들다’, ‘전화를 걸다’, ‘계획을 세우다’, ‘정미 들다’와 같은 표현이 관습적으로 사용되지만, 우즈베크어에서는 각각 ‘uxlab qolmoq’, ‘qo‘ng‘iroq qilmoq’, ‘reja tuzmoq’, ‘mehr qo‘ymoq’와 같이 의미가 비교적 투명한 동사가 결합된다. 이러한 차이를 명시적으로 대조하지 않을 경우, 학습자는 모국어의 결합 방식을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대조 중심 교수 전략에서는 먼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한국어 연어와 우즈베크어 연어를 병렬적으로 제시한 뒤, 각 언어에서 사용된 동사의 의미 범위와 결합 제약을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한국어 연어가 단순한 의미 조합이 아니라 관습적 결합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며, 직역에 의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대조 활동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모국어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삼아 목표어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학습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다-surat olmoq’, ‘돈을 벌다-pulishlab topmoq’와 같은 대응 관계를 통해, 동일한 행위라도 언어에 따라 개념화 방식과 동사 선택이 다를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연어와 우즈베크어 연어를 제시한 뒤 올바른 대응 관계를 연결하는 매칭 활동이다. 둘째, 우즈베크어 연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직역 표현과 관습적 언어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비교·선택 활동이다. 셋째,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여러 한국어 연어를 담화 맥락 속에서 비교하여 사용 차이를 탐구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대조 중심 교수 전략은 학습자가 연어를 암기해야 할 개별 표현이 아니라, 언어별로 다르게 조직된 어휘 체계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과 연어 회피 현상을 완화하고, 보다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한국어 표현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6.3 수업 활동 예시

대조 중심 교수 전략과 연어 단위 중심 어휘 제시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명사+동사 연어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활동 예시를 제안한다.

첫째, 연어 대응 인식 활동이다. 교사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한국어 연어와 우즈베크어 연어를 표나 카드 형태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잠이 들다-uxlab qolmoq’, ‘전화를 걸다-qo‘ng‘iroq qilmoq’, ‘계획을 세우다-reja tuzmoq’ 등을 제시한 뒤, 학습자가 의미 대응 관계를 연결하도록 한다. 이 활동은 학습자가 두 언어에서 연어가 어떻게 다르게 실현되는지를 인식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직역과 관습적 표현 구별 활동이다. 교사는 우즈베크어 연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한국어 번역으로 직역 표현과 관습적 연어를 함께 제시한다. 예를 들어 ‘surat olmoq’에 대해 ‘사진을 하다’와 ‘사진을 찍다’를 제시한 뒤, 실제 사용에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직역에 의한 오류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셋째, 연어 확장 및 대체 활동이다. 하나의 명사를 중심으로 여러 연어를 제시한 뒤, 담화 맥락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말’을 중심으로 ‘말을 하다’, ‘말을 걸다’, ‘말을 전하다’ 등을 비교하게 하여, 연어 선택이 의미와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인식하도록 한다.

넷째, 담화 기반 연어 사용 활동이다. 짧은 상황 제시문이나 대화를 제공한 뒤, 빈칸에 적절한 명사+동사 연어를 완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먼저 () 것은 쉽지 않다’와 같은 문장에서 ‘말을 걸다’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 활동은 연어를 실제 의사소통 맥락에서 사용하는 연습을 제공한다.

다섯째, 비교·성찰 활동이다. 학습자가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일반 동사 표현을 떠올린 뒤, 이를 관습적인 명사+동사 연어로 바꿔 써 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계획을 하다’를 ‘계획을 세우다’로 수정하게 하여, 자신의 언어 사용을 점검하고 고급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수업 활동은 학습자가 연어를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언어 간 차이를 인식하고 실제 사용으로 연결하도록 돕는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즈베크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사용을 보다 자연스럽게 유창한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7.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에 나타나는 명사+동사 연어를 대조·분석하여 두 언어의 어휘 결합 양상과 동사 선택의 차이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양상과 오류 유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명사+동사 연어를 중심으로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 직역에 의한 오류, 언어 회피 현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교수·학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어의 명사+동사 연어는 특정 명사와 결합하는 동사가 관습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의미 투명성이 낮은 반면, 우즈베크어는 의미가 비교적 명확한 일반 동사를 활용한 결합이 우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언어 간 차이는 우즈베크어권 학습자가 한국어 연어를 사용할 때 일반 동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모국어 표현을 직역하여 비자연스러운 표현을 생성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본 연구는 언어 오류를 단순한 문법적 오류 차원이 아니라, 표현의 유창성과 고급성 발달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재개념화하였다. 일반 동사의 과잉 사용은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지만 표현의 자연성을 저해하며, 직역에 의한 오류는 학습자의 중간언어 체계에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오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관습적 언어 사용을 회피하는 현상은 학습자의 어휘 사용을 제한하고 언어 발달을 정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언어 단위 중심 어휘 제시와 대조 중심 교수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언어를 개별 단어의 조합이 아닌 하나의 의미 단위로 제시하고,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언어를 병렬적으로 대조함으로써 학습자는 언어별 어휘 결합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업 활동 예시는 언어 인식에서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 교수·학습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명사+동사 언어를 본격적으로 대조 분석하여 언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오류를 유형화하고 그 원인을 언어 간 차이와 학습 전략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를 교수·학습 방안으로 연계하여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자 말뭉치나 실험 연구를 통해 언어 오류의 빈도와 발달 양상을 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사+동사 언어 외에 형용사+명사, 부사+용언 언어 등 다양한 언어 유형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사+동사 언어 능력은 단순한 어휘 지식이 아니라 외국어 학습자의 표현 수준과 숙련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대조적 관점과 교수·학습 방안이 우즈베크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사용을 보다 자연스럽게 고급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은성(2010). 한국어 연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학*, 49, 29-58.
- 김정남(20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연어 지도 방안. *외국어교육연구*, 29(2), 201-225.
- 나은영·이정훈(2018).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동사 연어 오류 분석. *언어와 언어학*, 74, 101-128.
- 배윤경(2012). 한국어 연어의 유형과 교육적 적용. *국어교육연구*, 45, 67-98.
- 손경아(2016).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결합 오류와 교수 전략. *이중언어학*, 63, 139-168.
- 이민우(2019). 대조 분석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6(3), 55-82.
- 정명숙(2014). 외국어 학습자의 연어 회피 현상 연구. *응용언어학*, 30(1), 89-115.
- 강범모(2005). 『한국어 사용 빈도 분석』.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강현화(2010). 한국어 연어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 방안. 『한국어 교육』, 21(3), 1-24.
- 김정숙(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4(1), 45-68.
- 김지형(2015). 한국어 명사+동사 연어의 의미적 특성과 교육적 활용. 『국어학』, 72, 155-186.
- 김현진(2018).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오류 유형 연구. 『이중언어학』, 77, 89-118.
- 나은영·박성현(2012). 대조 분석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응용언어학』, 28(2), 33-61.
- 박경자(2007). 한국어 연어의 통사·의미적 제약. 『국어학연구』, 39, 201-230.
- 서상규(2009). 한국어 어휘 결합 관계 연구. 『국어교육연구』, 43, 77-104.
- 신지영(2016). 외국어 학습자의 연어 회피 현상 분석. 『언어와 언어학』, 68, 123-149.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 이정희(2014). 한국어 교육에서 연어 지도 방안 연구. 『한국어 의미학』, 45, 91-120.

정명숙(2017). 우즈베크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결합 오류 분석. 『한국어 교육』, 28(4), 59-88.

최은숙(2020). 한국어 연어 단위 중심 어휘 제시의 효과. 『외국어교육연구』, 34(1), 101-130.